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어느덧 22년

모국-재외동포간 유대 강화

‘세계 한상대회 20년사’ 책자에 보면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 한상대회) 배경 및 추진 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세계 180여개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재외동포는 약 750만명으로 전체 한민족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이 본격 가동된 시기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부터였다.

정부는 1996년 5월 제1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997년 재외동포재단을 발족시켰다. 그 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2월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국내 외 재외동포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코리아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1998년 10월 재외동포재단 창립 1주년 기념과 맞물려 해외 한인족 경제공동체 대회’가 열렸다.

한편, 정부는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정식명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015호)을 제정해 1999년 12월 3일 시행하면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1993년 이후 부터 재외동포 대상 글로벌 차원 정책 가동
2002년 서울서 첫 한상대회... 세계 한상 네트워크 ‘첫 발’
재외동포들의 열띤 참여로 해가 갈수록 짜임새 있게 진행

미련했다.

이를 계기로 모국과 재외동포의 유대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 1월 재내 내에 경제부를 신설하고 한상네트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2년 10월 8일 서울에서 ‘제1차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해 마침내 세계 한상 네트워크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매년 10월 하순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5,000여명의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간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가 현재까지 21회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4회, 부산 4회, 제주 3회, 인천 2회, 경기도 1회, 대구 1회, 광주 1회, 경주 1회, 창원 1회, 여수 1회, 울산에서 1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으며, 이때 인천과의 열띤 경합 끝에 이쪽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에는 대회 유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전북 자치도청 공직자들로 구성된 대회 유치지원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대회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크게 주요했다.

대회와 관련, 특징적인 것은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

최하지 못했다.

19회 때인 2021년에는 서울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항 출입국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203명의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행사장에 직접 찾아오는 애정 어린 모습이 연출되었고, 온라인 863명과 오프라인 796명이 참석하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해가 갈수록 대회가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K-POP과 K-food 열풍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한국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대회가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시민은 “이제 대회 개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실 속에서 세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호우 피해지역, 침수 가전제품 무상수리

행안부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완주 운주면 50세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가전제품무상 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의 약 50세대에 대한 무상점검·수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해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완주군의 요청에 따라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간접 지원의 일환으로 가전제품 수리 지원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11일부터 지원 받게 됐다.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적극 협력해 수리 통합 부스를 운영하고 피해지역 수요를 파악해 군산, 익산 등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리 통합 부스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찾아가는 서비스를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실시

오늘부터 5주간 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도내 41개 공공기관·기업서 실무체험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을 실시한다.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는 인턴십으로, 모집을 통해 168명이 선발되어 지난 10일 사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쳤으며, 15일부터는 5주간 직무체험을 수행하게 된다.

직무교육은 25일과 8월 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료식은 오는 8월 16일에 진행된다.

올해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도내 청년(18~39세)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 792명이 신청하여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참여자 모집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직무인턴 참여자에게는 직장 내 실무적응과 직무능력 개발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인턴십이 청년들이 취업으로 가기 전 내방면의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다.”라며, “인턴십을 통해 생생한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취업 역량을 쌓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 근로자 산업 안전 강화 지원 추진

도-고용부, 현장컨설팅·산업안전 교육 통역 지원

통 번역 지원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안전 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에 따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안전 분야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산업안전관련 자체교육과 고용노동부의 현장컨설팅 시 현장 통역 지원이며, 한국어로 제작된 산업 안전 알람판과 알람내용의 모국어 번역지원도 지원된다.

지원 가능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미얀마어 등이며, 주가격인 수요 발생시 지원 가능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컨설팅 및 산업 안전에 대한 통 번역 지원 등은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551-1195)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혜수 대외국제소통과장은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통 번역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전북 특사경, 여름 휴가철 맞아 15일부터 26일까지

고질적·중대한 위반업소, 형사고발·행정처분 조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윤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 내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영업장 외 장소 영업) △소비가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건 강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잠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물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공위생, 의약품, 청소,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로 신고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

제4기 전북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출범... 총 28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제4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이병도 전북자치도의원, 김광수 건설교통국장 등 참석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설명과 더불어 전북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구성된 진흥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25명 등 총 28명으로 위촉직은 연임에 동의한 13명과 신규 12명으로 선발, 분야별로는 디자인 14명, 건축·도시 6명, 샵테드·지역문화 5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본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계획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지역의 정체성·예술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3기 진흥위원회에서는 18건의 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추진하여, 디자인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제4기 진흥위원회는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4기 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제4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출범했다.

을 통해 문창호 군산대 명예교수가 선출되었다.

문창호 부위원장은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 등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위원회로서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제4기 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전년의 역사와 미래가 융합하는 특별한 도약으로써 실행 가능한 계

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57건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 행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올 상반기엔 14개소에 5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관광·레저 중심 스포츠 시설 구축 필요”

새만금청, 5대 특구 전략 ‘스포츠 산업 분야 주제 세미나 성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지난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방향’을 주제로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키포트 세미나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을 초청해 스포츠 산업 트렌드, 해외 주요 스포츠 클러스터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새만금 조성 방향 및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상훈 실장은 “최근 급증하는 레저 스포츠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육·수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발굴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레저 중심 스포츠 시설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장 등 단일 스포츠 시설 구축 위주로는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문화·관광·공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 형태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최근 골프장 조성 등 민간 중심으로 새만금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모델을 구체화해 관광 분야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과 병행하여 고군산군도, 새만금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방향’을 주제로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등 차별화된 관광 포인트 및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한 해외 스포츠 이용객 유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청은 그간 5대 특구 전

략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체류형 MICE(마이스) 산업, 관광 연계 농식품 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